

칼럼



영화 '아바타2 (물의 길)'는 교훈과 감동을 주는 명작이다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지난 토요일(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혜화CGV에서 영화 '아바타 2(물의 길)'을 보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박태상(朴泰尙) 방송대 명예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좋은 영화를 보고 영화 비평을 하는 모임인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영사모)' 회원들과 함께 관람했다.

2005년부터 '향수'의 시인 정지용(鄭芝溶)을 기리는 충북 옥천 지용제(芝溶祭),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이효석(李孝石)을 기리는 강원도 평창의 봉평메밀꽃축제 등에 참석했다. 박태상 교수의 실력과 인품이 훌륭하고, 좋은 영화가 보고 영화비평 시간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유익한 시간 이어서 만나 제치고 꾸준히 참석해 왔다.

2009년에 나온 영화 '아바타1'의 시대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후인 2154년 이야기다. 편리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자원이 고갈되어 귀중한 자원 채취를 위해 판도라 행성을 찾아 가서 평화로운 원주민 나비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한다. 나비족은 기적적으로 전쟁에 승리한다.

영화 '아바타2'는 15년이 지난 2169년 나비족과 싸우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마티카아 부족 족장이 된 제이크 설리와 네이타리는 가정을 꾸리고 네 자녀를 갖는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판도라 행성에 이번에는 자원 채취가 아닌 완전 이주 목적으로 지구인들이 우수한 무기를 앞세우고 침입한다. 하늘을 나는 이크란을 타고 아버지가 몰려온 화살로 싸우는 나비족은 첨단 살상무기로 무장한 지구인을 감당할 수가 없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멧카이나 부족 속으로 피신한 제이크 일가족을 찾아서 죽이려는 과정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불합친 제이크의 자녀들을 구해낸다. 구출된 자녀들이 익사 직전의 부모들을 구해낸다.

'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물은 모든 것을 함께 묶는다. 생명과 죽음, 어둠과 빛', '바다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은 후에도 있다. 바다는 주고 바다는 가져간다.' 가족이 지켜야 할 요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남자의 존재이유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대화가 누적 관객수 역대 순위 1위 '아바타1'과 3위 '타이타닉'을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메시지도, 그의 철학이다.

셋째,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문명과 과학은 발전시켰지만 자원 고갈과 기후위기, 환경 파괴 등을 가져와서 미래 지구는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어서

자원 취득과 이주 목적으로 다른 행성을 찾으려 다닐지도 모른다는 준엄한 경고다.

둘째,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남을 차별하고 벽을 쌓고 싸우고 있는 부족주의(tribalism)와 비인간화(dehumanize)의 세상을 만든 기성세대와 기득권층, 우리의 과거 잘못에 대한 통렬한 풍자요, 뼈 아픈 비판이다. 판도라 행성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교감을 통한 의 사소통을 하면서 평화롭게 잘 살아간다. 인간과 육지동물, 공중의 새들, 해양 생물들과도 얼마든지 교감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현재 나는 까치와의 교감을 통해서 절절히 체험하고 있다.

셋째, 타자화(他者化)와 대상화(對象化), 파편화(破片化)가 판치는 실존(實存) 상실의 고도 과학기술정보사회, 4차산업혁명시대에도 가족이 인간 존재의 근본 이유라고 가족의 소중함을 눈물겹게 강조하고 있다.

넷째, 영화를 시작할 때도, 끝날 때에도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환호하며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린다. 아이들이 잡혀갈 때 부모가 목숨을 걸고 구출했고, 아이들이 자라서 절제절명의 부모들을 구출한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요 물처럼 남들을 감싸주고 화해하는 미래다.

1월 8일(일), KBS-TV에서 방영한 '동물의 왕국'에서 '티베트 고원의 어미 눈표범'을 보고 눈물이 났다. 위험한 천적들로부터 새끼들을 지키려고 눈 덮힌 고원의 위태로운 절벽 바위 틈에서 낳아놓고 먹이를 구하려고 내려갔다. 그 사이에 철없는 아기 눈표범 두 마리가 집을 나섰다 한 마이는 떨어져서 흔적도 없고 한 마리는 위태로운 눈 쌓인 절벽을 헤매고 다니다가 다리도 다쳐서 절룩거렸다. 집에 들어온 어미 눈표범은 새끼들이 없자 새끼들을 슬프게 부르면서 위험한 동물 무리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찾으려 다니는 모습은 눈물겨웠다.

완전히 놀랍고 감동적인 모습은 영토 침범했다는 이유로 솜털 눈표범이 공격해오니까, 아직 완전히 자라지도 않은 새끼 눈표범이 목숨을 걸고 어미 눈표범을 대신해서 사생결단의 결에 나서서 것이었다. 새끼 눈표범의 무서운 결기가 무서웠던지 솜털 눈표범이 슬그머니 도망쳤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면서 키우고, 자라난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고 구하는 모습이 '아바타2' 영화와 우리 삶과 완전히 같았다.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감동이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

기고

신용진 보성경찰서 경무과 경사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감이 반복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 또는 예정 중이다.

건설공사는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별로 공사업체 대상으로 갈취 및 채용 강요 등으로 건설현장 조직적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에 대한 상당한 법 집행으로 국가의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등 건설현장의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 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고강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건설현장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행위, 공사방해 자재 등 조건으로 금전 갈취,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 있다. 경찰청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좀더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에서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관려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공사 업체들은 공사방해·폭행 등 보복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운영 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을 한 경우 적극 신고·제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악질적 집단범죄는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등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공사단가 상승, 부실한 공사 등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정부기관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루 빨리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뿌리 뽑혀 올바른 민생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기고

진화하는 피싱 사기

김태경 나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장



과거 피싱 범죄라고 하면 어눌한 말투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말하는 조선족을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 방식 영역의 점차 확장됨에 따라 이로 인해 피싱의 범죄 수법도 비대면 대환대출, SNS 및 메신저를 통한 지인 사칭, 수익률 높은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나주경찰서에 접수된 피싱 범죄의 형태를 보면 피싱 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 내용을 가로채거나 심박스(SIM Box)등을 이용하여 변조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말하며 입금을 유도하고 ATM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던 방식과 달리 일단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되면 피싱 범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인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피싱범들은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보험을 해약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발생한 피해금을 이체하는 등 범행에 피해자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피싱 범죄로 인해 발생한 누적 피해금은 3조8,681억으로, 1건당 피해금액은 2019년 1,699만 원에서 2021년 2,5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피싱 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되는 국제전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안내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번호 변조 중계기(SIM Box)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하는 등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며, 경찰청에서는 불법 어플 탐지 '시티즌 코난'이라는 어플을 개발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추적·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첫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현금 전달이나, 상품권의 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둘째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고수익 투자, 서민 대상 대환대출 등 광고에 유의하고,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URL(인터넷상의 파일 주소)을 통한 어플 설치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인으로 속여 말하며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싱 범죄의 특성상 발생한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범죄 예방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